

현대한국지리의 내용체계: 대안적 검토

박영한

서울대 교수

1.

일지기 하트손은 「지리학의 본질에 관한 전망(1959)」에서 지리학은, 지표면의 다양한 성격에 관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서술과 설명을 제공하는데 관심을 지닌다. 라고 하였다. 다시말하면, 지리학은 지표의 다양성과 지표현상의 분포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듯하다. 전자는 지표의 부분지역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지표현상의 요소를 대상으로 지표전체에 걸친 체계적 연구라고 볼수 있다.

한국지리연구는 한국이라는 지역을 지표의 일 대상으로 삼고 그 다양한성을 추구하려는 것이며, 후자의 체계적 분석도 보완적 의미를 지닌다. 다양성의 추구는 한국이라는 공간내의 다양성을 찾아내는 연구로부터 한국을 포함한 삼부지역 속어세 한국적 지표의 성격을 규명하려는 것이라고 본다.

지역에 관한 종합적 이해를 지향하는 지역연구는 오늘날 지리학을 비롯하여 역사학, 인류학을 포함한 인문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역에 관한 종합적 이해는 인간의 삶의 이해를 전제로 하며, 이것은 삶의 형태를 규명함으로써 어느 정도 가능해 질 수 있다. 일정 지역의 삶의 형태는 일정지역의 사회전반을 반영하므로 사회변동에 따라 삶의 형태를 변화하게 된다. 예를 들면, 농경시대의 삶의 형태와 산업시대 또는 정보화시대의 삶의 형태간에는 차이가 있다.

지리학에서의 지역연구는 연구하려는 전체지역은 물론 부분지역의 특성을 찾아서 설명하고, 그 특성들이 전체 지역 속에서 어떻게 투명되어 배열되어 있는가를 밝혀 내어야한다. 지역특성과 그것의 배열원리를 발견하려면, 그 시대의 사회상을 포착할 수 있는 내용체계가 정립되어야한다고 본다. 농경사회의 지역분석 잣대와 산업사회의 그것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성격의 변동에 따라 지역지리학의 내용체계도 달라진다는 전제하에서, 현대한국사회가 터를 잡고 있는 국토공간의 지역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잣대를 필요로 할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화 시대에 저술된 한국지리의 내용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현대한국의 지리적 이해를 위한 내용체계의 대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검토된 한국지리지서는 다음과 같다.

- 1) 강석오(1984), 신한국지리
- 2) 정장호(1986), 한국지리
- 3) 건설부 국립지리원(1983—1986), 한국지리
- 4) 권혁재(1997, 2003), 한국지리
- 5) 임덕순(1992), 우리나라 전체와 각 지역
- 6) KEDI(1988), KOREA
- 7) 제 29차 IGC조직위원회(2000), 한국지리